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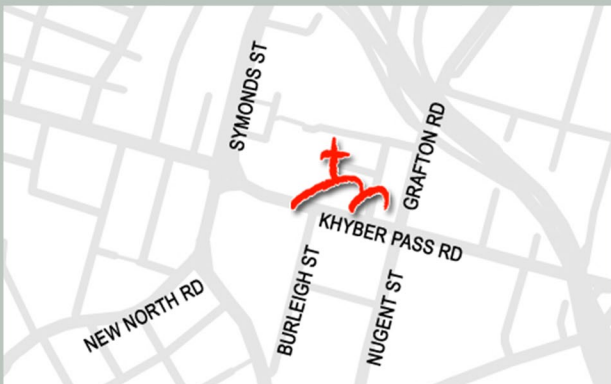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 2020년을 위한 정책 당회가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한 주간 저녁기도회가 오는 12월 16일(월)-20일(금)까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로마서 1:16)
장소: 월/시 62:1-12 하나님 안에서만 (청소년부실)
화/마 6:9-13 기도하는 인간 (본당)
수/출 15:22-27 치료하는 여호와 (본당)
목/마 14:28-3 모험의 인생 (청소년부실)
금/시 23:1-6 온전히 자유한 삶 (본당)
4. 2019년 성탄 감사예배와 축하 잔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25일)
성탄 감사예배 / 오후 5-6시 저녁 식사 / 오후 6-7시 성탄 축하 / 오후 7시-8시
(성탄 감사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5. 올해 교회 요람에 누락되었거나 변경 혹은 수정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와 제출함은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분야/ 예배 준비 및 정리, 교사, 찬양단, 주차 안내, 음향, PPT 등).
7. 각 선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성탄 축하 퍼포먼스 준비를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8. 신앙의 토대 성경 공부 수료자: 김명옥 김자경 김창조 박영선A 박현주 이옥화 이해경
9. 2020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당 벽걸이, 탁상용 각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 임태원, 최은수 집사 가정 득녀(임채은) 축하드립니다.

[12월 교회 사역 일지]

16-20일(월-금): 한주간 저녁 기도회 31일(화) : 송구 영신예배
25일(수): 성탄 감사예배 및 축하 잔치
29일(주일): 송년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2/15
21권 50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84:10-11	-----	인도자
■ 찬송	36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122장	-----	다같이
대표기도	-----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2:25-33	-----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기다림의소망	-----	이태한 목사
찬송	176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저녁기도회	금주기도	김준섭 형제
성경봉독	출애굽기 15:22-27	다음주일	오혜윤 자매
설교	[치료하는 여호와] 이태한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261장		
주기도	다같이		

[12/1월 기도 순서]

12월 22일 (주일) / 박병민 장로
12월 25일 (수) / 성탄 감사 예배
12월 29일 (주일) / 정관영 장로
1월 1일 (수) / 가정 예배

[12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광희, 김영옥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일본 강태영, 채정미 선교사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총회 임원 회의 처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교제한 교회 부부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시는 모든 후원 교회와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이타마 감사 기독교회의 강태영, 채정미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 사역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교회 내 사역

지난 10월 13일은 저희 교회의 창립 16주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16년간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후원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쁘게 예배하고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선교 연합 사역

8월에는 연합 사역으로 2019 KOSTA EAST JAPAN 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참석한 13명의 일본인 성도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힘 있게 증거 하기를 사모하며 돌아왔습니다.

3. 지역사회 봉사 사역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0년 이상 기도하며 왔는데 2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미하시 지역을 섬기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마다 열리는 여름 축제와 10월에 열리는 지역 운동회 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름축제 때는 교회의 청년들 중심으로 춤을 준비하여 지역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 운동회 때는 교회 성도들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각 경기에 참여함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름 축제와 운동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여졌고 지역사회에 필요를 채우고 같이 동참하는 교회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택가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특히 소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4. 캠퍼스 사역

매년마다 열리는 사이타마 국립대학교 문화제에 이번에는 캠퍼스에 등록된 동아리를 통해 가스펠 라이브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마지막 곡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부를 때 듣고 있던 학생들이 무슨 노래냐며 다가와서 물어보았고 흥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케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 1) 사역자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배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 2) 지역사회를 더 잘 섬김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 지역 복음화가 더 힘 있게 확장되어 가도록.
- 3) 예언자가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저와 아내에게 영육의 강건함이 있도록.

이게 나이 탓인가요?

지난 화요일 아침, 교회로 출발하면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휘발유 값이 장난이 아니라서 여기저기 몇 군데 기웃거린 후 가장 싼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유기 중에서도 직접 주유를 하면 몇 센트 더 싼 자가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캐시 카드를 먼저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 어떤 종류의 휘발유를 선택할 것인지, 영수증은 필요한지, 몇 단계를 거친 다음 주유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끝으로 마치 허기진 배를 채운 흐뭇한 포만감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어떤 운전사는 저를 흘깃 쳐다보며 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곱게 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하면서 혹시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사이드 미러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자동차 연료통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차에 부착된 연료통 덮개가 달리는 차의 속도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오락가락하니 지나가던 차량들이 그것을 알려주려는 나름의 친절을 베푸느라 경적을 울리고 쳐다보고 간 것입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요?

이 일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살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릴 때 ‘왜 사람들이 나에게’보다는 ‘나에게 무슨’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안도하기보다는 항상 내 신앙 상태를 살피며 점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왕 실수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에 막 진입했을 때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출구로 나갈 수 있어서 그 주유소로 갔습니다. 주유기 옆에 놓아둔 뚜껑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얼른 뚜껑을 잠그고 다시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누구나 실수한다고 그 실수를 당연하게 반복한다면 그거야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큰 잘못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실수는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합니다.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실수를 빨리 깨닫는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있는 그나마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이 나이 탓인가요? 그것으로 화요일의 해프닝이 끝이 아닌데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네요.

이태한 목사

1. 진리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한 주간 저녁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3.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누가복음 2: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